

다시 인문학을 논하며

먼 옛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삶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은 점토판에, 파피루스에 자신의 생각을 그려내고 기록하면서 삶의 고민들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고뇌는 지식과 지혜로 발전되었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서양에 소크라테스와 그 후예들이 있다면 중국에는 공자, 노자, 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또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선생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 등 기라성 같은 사상가를 배출하며 인간의 근원적 삶, 무한한 시간의 저편에 도달하기 위해 탐구에 탐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문학이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사철’은 돈이 안 되는 학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문명이

발달해 가는 요즘 인간의 근원을 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학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중에서도, 다행히 최근 인문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인문학 강좌는 대학 강의실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민간단체와 주민 문화시설, 광활한 인터넷 세상 곳곳에서 소리 없이 개설되어 온·오프라인 상의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한국정책방송 KTV에서 「인문학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1년이 넘는 기간에 매주 한 편씩 무려 70여 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문학열전」은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작년 봄 문화체육관광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상업화되어 가는 우리 방송 문화의 현실 속에 순수 인문학 분야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문학열전」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고, 첫 방송에 즈음해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쁨을 느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본격 인문학 프로그램 방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옥같은 내용을 책으로 엮은 KTV 인문학열전 시리즈 1권 『인문학 콘서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문화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흔쾌히 출연하고 원고를 집필하신 출연자 여러분, 정책방송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맡고서도 문화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

준 KTV 손형기 원장 이하 프로그램 제작진, 그리고 진행자 김갑수 선생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문학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성 상실로 촉발된 제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KTV 「인문학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렇게 제2·제3의 『인문학 콘서트』 발간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시청자와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12.2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무인촌

인문학 콘서트

1판 1쇄 발행일 2010년 1월 10일

지은이 | 김경동, 김기현, 최재천, 김광웅, 문용린, 정진홍, 황경식, 고미숙, 김효은, 장희익, 차윤정, 도정일,
박정자, 김영한

펴낸이 | 임왕준

편집인 | 김문영

펴낸곳 | 이숲

등록 | 2008년 3월 28일 제301-2008-086호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14-2 동아빌딩 302호

전화 | 2235-5580

팩스 | 6442-5581

홈페이지 | <http://www.esoope.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esoope>

e-mail | esoope@korea.com

ISBN | 978-89-94228-00-6 03040

© KTV 한국정책방송, 2010

© 김경동, 김기현, 최재천, 김광웅, 문용린, 정진홍, 황경식, 고미숙, 김효은, 장희익, 차윤정, 도정일, 박정자,
김영한, 김갑수, 201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와 이숲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09004008)」
- 이 책에 수록된 도판의 저작권을 보유하신 분은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